

대전디자인진흥원, 국가 디자인 R&D 3대 과제 동시 선정...지역 주도 글로벌 진출 가속

조준영 기자 | 승인 2025.08.12 13:03

스마트 제조·친환경·안전 분야 혁신 기술로 대전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디자인 R&D, 국가 성장동력으로 확장

DIDP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사진=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도 제3차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서 총 3개 과제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대전은 첨단 디자인과 제조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디자인산업기술개발사업은 디자인 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해 시장과 수요자가 원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R&D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지역에서 시작된 디자인 혁신이 시제품 개발을 넘어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최근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개편 방안'을 통해 도전적인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자인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선정 과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대전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선정된 3개 핵심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스마트 CMF(Color, Material, Finish) 디자인 추천 및 3D 제조 연계 시스템 개발이다. 소비자 취향과 요구에 맞춘 디자인 설계를 실시간으로 제조 공정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제품 제작이 가능한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친환경 해상 부유쓰레기 저감 기술 개발이다. 디자인 기반 환경 솔루션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소재와 제조 기술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해양 환경 보전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는 소방대원 안전과 활동성 향상 웨어러블 디자인 기술 개발이다. 극한 환경에서도 착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장비를 개발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디자인 혁신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결합해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첨단 디자인·제조 융합 거점 도시 도약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선정은 대전이 디자인과 제조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 지역 제조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은 첨단 디자인·제조 융합의 전국 거점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지역 기술혁신 역량을 국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조준영 기자